

## 2·28민주의거 43주년 기념 메시지

43년 전 오늘, 대구는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. 대구의 의거는 그 해 3·15마산의거와 4·19혁명을 낳았고 결국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랑스런 역사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승화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를 출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.

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저는 성숙한 의식으로 나라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뜻하지 않은 지하철 방화 참사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 빨리 이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.

지금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. 다가올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후퇴하고 말 것인가를 가름하는 분수령입니다.

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. 우리 국민은 언제나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. 그것이 바로 2·28민주의거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.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.

다시 한번 43년 전 대구의 뜨거운 합성을 되새겨 보면서 '2·28민주의거 기념  
사업회'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